

- 조직사업의 내실화
- 지회조직의 활성화
- 신규사업 조기정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중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 733-2189, 732-8159 / 팩스 (02) 3210-1449

대전총국 '제1회 가족의날' 성료

대전 방송총국(총국장 김영신)은 10월 27일 저녁6시 총국 분수대 광장에서 '제1회 KBS 가족의 날' 행사를 가졌다. 대전총국에 몸담았던 선배를 비롯하여 현역 간부들, 그리고 대전총국 시청자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KBS대전 어린이 예술단의 합창, 섹스폰 연주 등으로 행사 분위기를 열띠게 했다. 서병주 사우회 회장은 화환을 보내고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가을 등산대회, 우정을 다지고



사우회 추계 등산대회가 10월 20일 낮 11시 관악산에서 열렸다. 65명의 회우가 참가한 이날 행사는 서울대 입구에서 출발, 관악산 제4야영장까지 등반한 후 사우회가 마련한 도시

락과 음료수를 나누며 가을 산바람에 맘을 식혔다. 점심 식사를 끝낸 후 회우들은 삼삼오오 산행을 계속하고 하산 후 막걸리 한잔을 잊지 않았다. 사우회는 관악산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악산 노인 자원 봉사자들에게 도시락과 음료수를 기증했다.

3차 회우 의견 모으기 11월 말까지 회신당부

사우회 회우들의 의견 모으기가 실시된다. 3년째 계속되는 이번 모으기도 건강, 생계, 생활패턴, 요즘의 KBS, 사우회에 바란다 등 5개 항목에 34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번 문항에는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한 회우들의 의견도 듣는다. 11월호 회보와 함께 전달되는 설문지 회신은 11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집계 분석 결과는 새해 1월호 회보에 게재된다. 설문지 회신에 회원 모두가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회비납부율 66% 10월현재 장기미납 회우들의 납부 당부

회우들의 회비 납부율이 10월 15일 현재 66%에 머물고 있다. 이 납부율은 사우회 창립 후 최고의 납부율을 보였던 작년보다 7%포인트 낮다. 미납 회우는 327명(34%)이며 그중 5년이상 장기 미납회우는 136명, 2005년 미납 회우는 191명이다. 그리고 금년 회비를 아직 안낸 회우는 328명이다. 사무국은 미납 회우들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11월 회비 완납의 달로 정하고 납부 안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위원회 촬영모임가져

사진위원회(위원장 정근춘)는 10월 18일 월드컵 경기장 하늘공원에서 '여새꽃 축제'를 영상 제목으로 하는 촬영모임을 가졌다. 참가자 8명. 9월 20일에는 한국 민속촌에서 '가을의 문턱에서'를 영상 제목으로 촬영회를 가졌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백남주 / 139-989, 서울 노원구 하계2동 벽산(주) 10-1003 (011-265-0240)
- 이명희 / 139-050, 서울 노원구 월계동 372-5 대명빌라 가동 201호 (017-268-6911)
- 김선인 / 305-330, 대전 유성구 지족동 연매마을 6단지(주) 606-403 (016-885-4870)
- 정운성 / 150-778,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삼성래미안(주) 103-1902 (02-844-6100, 011-9777-8104)
- 김수남 / 415-070, 경기 김포시 중무동 당곡마을 현대(주) 205-1403 (031-989-3512, 010-9786-3512)
- 김윤곤 / 706-795, 대구 수성구 황금1동 60 황금우방2차(주) 203-507 (053-762-5464, 010-6557-6266) kyk@kbs.co.kr

회비내신분

- 2005년/ 송무근
 2006년/ 김상근 김선인 김수남 김윤곤 김정남 김진삼
 김춘빈 민두식 박영기 백남주 서희근 성대석 송보율
 오광진 유영조 이명희 이무근 이태원 이희문 임만규
 임응식 정서규 정성호 정운성 한운찬
 (9월 14일~10월 18일 회비접수분)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주소변경 회우

- 권유호 / 44 9-1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842 현대8차 센트럴 아이파크 112-1004
- 김병국 / 472-709,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주)202-1102 (031-555-4569, 011-793-4327)
- 심혁재 / 301-775, 대전 중구 태평동 삼부(주) 35-13
- 신정호 / 120-77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5 벽산(주)01-703
- 오현수 / 500-172, 광주시 북구 양암동 1662 동천마을 6단지 주공(주) 604-502 (062-513-8025)
- 유원길 / 302-767, 대전 서구 가수원동 계룡(주)3-90 7 (042-532-8596, 016-9566-8598)
- 이금수 / 449-130,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842 현대8차 센트럴 아이파크 107-303 (031-889-7911, 016-314-1833)
- 이정욱 / 611-073, 부산 연제구 거제3동 진흥하늘(주) 1302 (051-864-2770, 017-554-6770, 대교농장 055-883-5269) us504 23@kbs.co.kr
- 이길만 / 현대출타운 3차 303-403
- 민두식 / (011-9256-0071)
- 서인형 / (02-831-3563, 010-9871-6690)
- 이한동 / (010-3321-1772)

하반기 바둑대회 개최

사우회 하반기 바둑대회(위원장 변정호)가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종로 3가에 있는 광고 기원(Tel. 744-0445)에서 개최된다. 조별 대국으로 각각 치러지는 이 대회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당일 입장순으로 진행된다.

추계낚시대회 개최 새 위원장 윤재문 회우



본회 추계 낚시대회가 10월 13일 봉담 덕우 낚시터에서 열렸다.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떡붕어가 많이 낚이는 등 조황도 좋았다. 이

자리에서 고 김원창 위원장 후임으로 윤재문 회우를 만장일치 추대했다. 추계 낚시대회에는 강완수, 윤기범, 홍삼룡 등 원로 회원이 참가했으며, 대전의 하태준 회우가 합류했다. 수상자는 1등-유인화, 2등-강완수, 3등-장정훈, 행운상-이중순.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
KBS joy

당신을 사랑합니다
KBS rama

More Than Sports
KBS N Sports

Leader's choice
KBS prime

원하는 채널이 내 곁에
 미래의 미디어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 **KBS N**

<문화산책>



이인홍

약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하지만 우리나라 TV는 멜로드라마가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연속물은 대부분이 그렇고 사극마저 그 기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60년대에 비해 달라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그 기법의 영향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미치고 있다. 본래 멜로드라마의 발생이 정치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변동의 소산이라는 하지만 기존의 윤리와 규범과 질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시청자를 중독증에 감염시켜 '즉자적(即自的)사고'의 인간형으로 만들어 생각 없이 드라마를 추종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사회적 상황에서 목격하고 있다. 문화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드라마의 의상이 잘 팔린다는 것이 그 일면이다. 상가의 용어에 리얼클로즈(real clothes)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이 드라마에 익숙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피터 브룩스는 멜로드라마가 프랑스 혁명 이후 진리와 윤리가 전복된 상황에서 노스텔지어에 대응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고안되어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통적인 성성(聖性)의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일본인 학자들이 최근 '정(情)의 기법'이라는 공동연구 논문을 발표했다(2006년 9월 慶應義塾大學出版會). 그들은 멜로드라마를 '전통적인 성성(聖性)의 세상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진다. 엄격한 교리신앙 보다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 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회구제사상이 강조되어,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보다 하나님과 사회와의 관계가 선행되는 것으로 변했다. 세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의 편의를 따라야 하고

멜로드라마 중독증

결탁감을 배우고 세계의 중심적 존재를 재인식 재확득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으며 스테레오 타입이 되어 버린 이야기와 등장인물, 그리고 직정적(直情的)인 대사와 형식으로 관객의 감정에 호소하여 이 의식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정(情)의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19세기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미국에서 멜로드라마가 성행하게 된 것은 식민지시대 인심을 결속시켰던 칼빈주의(Calvinism)가 구심력과 지배력을 상실한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청교도(淸敎徒)신앙의 핵심이었던 칼빈주의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미국건국의 기초이념인 퓨리터니즘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인 예정론(predetermination)의 붕괴를 의미한다. 칼빈주의 신앙인은 내세주의자(來世主義者)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붕괴되면 현세주의자(現世主義者)로 타락한다.

성성(聖性)이 속성(俗性)을 겸해야 한다. 이러한 변동은 유니테리언리즘(unitarianism)의 합리주의사고의 영향이었다. 유니테리언은 예수의 신성(神性)과 삼위일체(三位一體)를 부인한다. 그래서 신앙과 사고가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다.

중산계급의 확장과 민주주의보편화 등 정치적 사회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결과로 형성된 것이 대중문화이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우리가 대중문화라는 말에 익숙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미국의 포퓰러컬처를 복사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우리는 개념정립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 대중을 표현하는 언어로 'mass' 보다 'popular'를 선호했다. 그 중심은 문화의 평준화와 수동적(기계적)향수에 대한 거부에 있었다. 대중문화는 오락문화의 모태가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오락산업의 천국으로 변했다.

오락에 포위된 미국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즐거움의 향유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청교도적 가치 추구와 본도덕의 실행을 어렵게 했다. 우리는 거의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멜로드라마가 초기의 정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오락문화의 한 분야에서 생산성을 따지는 경제적 가치에 치중하는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노스텔지어를 배우는 것이 멜로드라마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상실한 도덕과 희망으로 그 공백을 메우는 노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옥스퍼드사전(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1980년 개정판)은 멜로드라마를 '자극적이며 감상적인 드라마이며 종종 선동적이며 과장된 이벤트와 언동과 작품을 지칭하는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멜로드라마는 이미 자극적이며, 감상적이며, 선동적이며, 과장을 좋아하는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고 말았다. 그것이 '타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덕의 가치'를 파괴하고 악폐를 조장하여 '악덕(惡德)의 골짜기'를 더욱 음침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면 노스텔지어의 대응에 실패할 것이다. 다소곳한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까발리고 과장하는 선전이 판을 치고, 겸양의 미덕은 짓밟히고, 독주하고 독식하는 소 영웅주의가 고무되고, 삼강오륜이 파괴되어, 패륜의 패거리가 봉당을 이루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본회고문, KBS사장, 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회우여러분은 지금...

동정

- ◆ 강명수(KBS카메라 취재 OB팀 대표) / 10월 13일 서울 마포 이조식당에서 격월 정기회를 개최
- ◆ 구본출(본회 이사, 여의동 호회 지킴이) / 9월 19일 원로 기술인 초청 간담회를 여의도 한야지 포크에서 개최. 이인관 본회 전 회장을 비롯해서 48명이 참석
- ◆ 김은구(여맥회 회장) / 여맥회는 10월 17일 40여명이 참석 도봉산 등반을 겸한 월례회를 개최
- ◆ 김응만 / 지병 치료차 9월 30일 강남 영동세브란스 병원 분관 52병동 554호에 입원 가료중
- ◆ 김 현 / 10월 20일 인천 간석4동 성당에서 신자대상 특강. 10월 24일~2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새 사제 학교에서 '평신도가 바라는 사제상', '해외여행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특강
- ◆ 박창학(한국스마일부부클럽회장) / 10월 27일~30일 입원 부부동반으로 일본 다테야마, 우즈나키, 고마츠, 가나자와 등을 순방
- ◆ 성대석 / 10월 21일~25일

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중앙대학교 중국동창회 연례총회에 참석 / 10월 11일 중앙대학교의 제18회 중앙언론문화상 방송영상 부문상을 수상

- ◆ 이광주(서화위원장) / 10월 11일 지병 치료후 자택에서 통원치료중
- ◆ 이세진 / 9월 15일자로 3년 임기 교육방송(EBS)이사로 선임
- ◆ 이인관 전 회장 / 자택에서 작업 도중 척추를 부상하여 레이저 수술후 호자병원(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3번지 Tel.031-288-0530)에 입원 가료중
- ◆ 장정훈(청송회 회장) / 2006년 청송회 송년회를 11월 30일 저녁 6시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예정
- ◆ 장한성(사·한국방송인회 회장) / '시청자 주권과 권익에 대한 세미나'를 10월 25일 낮2시 명동에 있는 서울 YWCA 강당에서 개최 이흥주, 선정은 회우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정창기회우가 사회를 맡았으며 땅은 사우회 회우들이 참석

- ◆ 정선언(해오름 대표이사) / 9월 27일 독립제작사협회(KIPA)임시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임
- ◆ 홍금표(SKY HD 대표이사) / 10월 8일~16일까지 프랑스 칸느, 영국 런던 등지를 방문, 2007MIPCOM참관 및 해외 메이저와 회의

산수

- ◆ 민두식 / 10월 20일

희수

- ◆ 민중기 / 10월 5일

고의

- ◆ 최장훈 / 10월 1일
- ◆ 김동원 / 10월 6일
- ◆ 권광명 / 10월 21일
- ◆ 김재관 / 10월 25일
- ◆ 박상수 / 10월 25일
- ◆ 천영환 / 10월 26일

자녀결혼

- ◆ 오재룡 / 아들(10/14)
- ◆ 김상목 / 딸(10/21)
- ◆ 송태성 / 아들(10/21)
- ◆ 오수복 / 딸(10/21)
- ◆ 오금석 / 아들(10/21)
- ◆ 이길남 / 아들(10/21)
- ◆ 최연근 / 아들(10/21)
- ◆ 오중환 / 아들(10/22)

- ◆ 배정광 / 딸(10/28)
- ◆ 조성호 / 아들(10/28)
- ◆ 김우상 / 딸(10/29)
- ◆ 허태순 / 딸 11월19일 (일) 낮3시 일산천년부페 웨딩홀 10층

부음

- ◆ 홍승수 / 모친상(9/30)
- ◆ 이석로 / 모친상(10/4)
- ◆ 김경렬 / 빙모상(10/9)
- ◆ 김진삼 / 빙모상(10/13)

별세회우



최태수 회우가 10월 18일 지병으로 타계했다. 향년 55세. 고인은 77년 입사, 93년까지 16여년 동안 사무직에 근무하고 기획조정실 심사부 차장 대우로 퇴직했다. 4년간 KBS아트비전에 근무한 후 현재까지 (주)월드이벤트 TV심무이사로 근무. 유족은 미망인과 1남 1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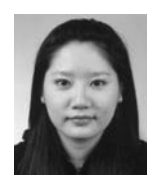
지회소식 대구지회 / 동해안 따라 가을여행



사우회 대구지회(지회장 임채기) 회우 50여명은 10월 20일 동해안 가을여행을 마쳤다. 울진 원자력 발전소 전시관·발전소 시설을 둘러 보았으며 덕구 계곡의 형제폭포, 옥류대, 선녀탕을 거쳐 용봉산 줄기의 노천오천에서 땀을 씻었다.

영덕 해맞이 공원에서 생선회와 소주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귀갓길에 올랐다.

공채 새 사무직원 - 이한울 양



사우회 사무국은 10월 24일 새 여자 직원으로 이한울(21세)양을 공채했다. 조정화 양과 박정화 양은 12월 말일자로 퇴직할 예정이다

사우회 합창반 2기 단원 모집

노래에 소질있는 분!! 누구나 환영 전화접수 733-2189, 781-8362 KBS사우회 이벤트위원회

社番 4番의 그때그 이야기 ⑥

글 : 이정석 회우

공동제작에 긴장

1978년의 일이다. BBC와 TV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계획이 국제국에 떨어졌다. 당시 우리나라가 TV는 흑백시대였지만 국제국장이었던 내 산하에 컬러제작팀이 있었다. 이 팀의 창설 목적은 미국 LA에 KTE라는 교민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다.



뉴스와 연예프로 등 KBS본체는 여의도시대 개막으로 영국차관으로 도입한 기자재가 모두 컬러제작이었으며 다만 송출은 아직도 흑백으로 할 때였다. 국제국 컬러제작팀에 BBC TV와의 공동제작 임무가 떨어진 이유는 당연했다. 그런데 이 공동제작은 BBC와 누가 주선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 주영대사관 공보관이 입으로 BBC에 제의했고 BBC의 동의를 얻어내 공보관은 한 건 한 것인데, 진작 일

을 맡는 국제국 컬러제작팀은 큰 곤혹을 치루는 결과가 되었다.

프로는 BBC다큐멘터리 'World Around Us' 라는 주간 연재 다큐멘터리로서 내용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식인 문화·풍습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공동제작에 컬러 제작팀이 곤혹을 치른 것은 모기관이 관여하면서부

BBC와의 이상한 공동제작 뒷 이야기

터이다. 모기관원은 BBC를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 후 경제발전상 홍보의 호기로 삼으려 했다.

드디어 BBC 프로듀서가 서울에 단신 도착했다. 컬러 제작팀의 선임 PD가 이 공동제작의 KBS측 대표 프로듀서인데 첫날부터 BBC측 프로듀서는 제작내용이나 촬영계획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회사 차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왔는데 우리측 PD는 울상이다. 유신 전하 모기관원은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기를 바라는데 BBC 프로듀서는

짖어지게 못사는 사람과 집을 헌팅하고 있다는 것이다. BBC 프로듀서는 헌팅과정에서 KBS프로듀서 없이 혼자서 렌터카를 해 아예 혼자 밀렘했다는 것이다. 책임자인 나는 후환도 있고 해서 그에게 문서로 '먼저 제작내용이 무엇인지 밝혀라. 명색이 공동제작(co-production)인데 KBS측 프로듀서

를 무슨 셀과(집꾼)로 취급하느냐'고 항의하는 문구도 집어넣었다.

그 후 제작협조는 그 전보다 순탄하게 되어 얼마 뒤 영국에서 카메라 크루가 도착해 약 3주간 촬영 끝에 그들은 돌아갔고 완성된 필름이 도착했다. KBS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모두들 BBC수준의 좋은 작품이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여직공 기합 장면 취재로 혼출 나 World Around Us 시리즈 - '가면(假面)을 벗은 얼굴' (behind the

mask)이 제목이다. 생명력 있는 한국 민을 그린 것이다.

그림은 남대문 시장 좁은 길을 누비는 신발을 과적한 인력거 신발장수의 피곤한 하루생활에서 시작해, 양반을 아우하는 서민의 탈춤이 다이나믹하게 계속된다. 춤추던 사람의 질신이 벗겨지면서 질신 close-up, 탈의 scene에서 무대는 현대로 넘어와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신발시장을 주름잡던 국제 상사의 운동화 제작공장으로 찾아가 한국의 옛것과 현대를 조명한 것이다.

나는 시사회서 남물래 BBC팀의 촬영 중 일어난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유심히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 장면인즉 국제상사 부산공장에 취재팀이 도착했을 때 벌어진 장면이다. 운동장 한가운데서 공장 여직공 10여명이 감독으로부터 군대식 '앞드려빠쳐'의 기합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이 장면을 BBC카메라맨이 놓칠 수 있는가? 창피한 고백이지만 BBC프로듀서를 떠나보내는 만찬석상에서 나는 껌속말로 "제발 그 장면만 빼달라"고 말했다. 그도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때만 해도 노동착취, 노동자학대가 다반사였던 시대였다. 요즘의 북한이 아직도 그렇지 않을까?



방송 기술 서비스의 혁명 IPTV시대 개막

이일로 회우 (방송제작기술협회 회장)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버린 요즘 미디어의 진화 발전 과정은 놀라운 정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진화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라디오 시대에서 흑백TV로, 컬러TV시대를 지나 이제는 SD/HD TV가 시청자의 시각과 청각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고 있는데 DMB라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까지 등장함으로써 그야말로 디지털 혁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 가정에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인터넷 세계에서 그 동안 동영상이나 TV뉴스 등을 생방송으로 PC모니터를 통하여 작은 화면(4인치 정도크

기:300bps 속도)으로 볼 수 있고 또 휴대전화를 통하여 동영상 보는가 하면 wibro(초고속무선인터넷 망)를 통하여 달리는 차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편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된 현실을 감안하여 방통(통방)위원회 설립 추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게 된 것은 오늘날 전자 기술의 발달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방송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다 라고 구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자 서비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된다. 서비스를 받는 수용

자 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욕심이 더 강하다 보니 수용자의 생각을 앞질러 전자서비스기술이 날로 날로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서비스의 총아(?)라 할 수 있는 IPTV(Internet Protocol TV)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기술개발은 우리나라가 앞서 갔지만 정책의 표류로 인해 외국(영국 일본 등등)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는 참에 관계기관인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위해 9월 KT와 하나TV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고 11월·12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IPTV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수신기(set-top box)를 이용하여 TV수상기에 연결, 실시간으로 뉴스도 보고 각종 방송,영화 기타 모든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IPTV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KT는 광케이블을 가정까지 연결

하고 전송속도를 개선하여 스트림 방식으로 IPTV를 실현하도록 추진해 왔고, 하나로 텔레콤은 다운로드 방식으로 IPTV를 구현하려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서 어떤 기술이 발표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내가 아는 모 중소기업이 개발한 전송기술로 ADSL수준의 인터넷망을 통하여 IPTV를 구현할 수 있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이 통하는 전세계 어디서나 수신기(STB)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TV수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될 것이다.

이쯤되면 방송서비스(지상파 방송, 위성 방송, 케이블 방송)의 개념이 무너지고 그 위상도 달라질 것이며 통신서비스인 인터넷 방송, VOD서비스 등의 개념도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방송서비스 기술의 혁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송회 카페 개설
- 대화의광장, 다정한 휴게실 자임 -



전직 경영 업무직 사우들의 친목모임인 청송회는 9월 23일자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주소는 cafe.daum.net/kbschungsonghoi
이 카페에의 운영 목표는 '따뜻한 나눔과 휴식이 있는곳! 편안한 대화의 광장'이다.
회원의 첫 공지사항은 '김응만 회원 수술 입원중'이었으며, 그 동안의 청송회 모임 스틸 사진들이 설명을 곁들여 한눈에 볼 수 있는 청송회 역사로 정리해 놓았다.

한길회 뉴스레터 발행



'안종수(안표순 회우)9월 정기 모임 전격 참석' 기사와 더불어 안표순 회우가 심갑섭 회우(대경대학 학장)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곁들였다. 2쪽은 장병근 한길회 총무와 안평선, 선정은 전총무들이 대구로 대경대학 학장인 심갑섭 회우를 찾아가서 나눈 환담 내용 등을 섞어 '대경대학 방문기'를 실었다. 그리고 2쪽 한모퉁이에 '私設 : 무보수 봉사직에 대한 예의' 제목으로 친목단체 총무의 어려움과 총무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지는 의견을 기술. 선정은 회우가 편집·주간·인쇄를 맡고 있다.

전직 KBS 중진들의 친목 모임인 'KBS 한길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10월 1일자 'NEWS LETTER' 2호를 A4용지 크기 2면으로 발행했다. 1면 톨은 "모임이 좀더 활기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요즘 어떠세요?

金森 회우와 차 한잔 나누며

음악이 은은히 깔리면서 막이 서서히 닫히고 배우들은 박수를 받으며 커튼콜. 그리고 텅빈 객석에 남은 연출자는 끝내 만족할 수 없어서 허탈해지고.. 배우 구하기 어렵고 관객 모시는 더욱 힘들고, 연극 한편에 들어간 경비는 빚으로 남고, 다시는 안해지지 결심하고도 며칠 안가서 다시 회곡 대본을 찾아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KBS 기자이면서 연극인 김삼일 회우이다. 1963년 KBS 포항국 성우 공채 1기로 방송에 입문, 대구국 성우 5기, 1969년 8월 1일 포항국 기자로 발령, 1998년 12월 31일 대구총국 취재부장으로 퇴직.

1969년 12월 김회우가 기자로 발령 받고 바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울진 중계소로 부임했는데 미 공군 팬텀기가 울진에 추락, 조종사 2명이 사망하고 마을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 사건이었다. 전국 매스컴의 촉각이 울진으로 집중되었는데, 당시는 TV도 없고 포항국 라디오 방송만이 유일한 매체였다. '1분뉴스'로 김삼일 기자의 리포트가 전국으로 방송되고 서울의 여러신문과 전국의 지방지들이 앞다투어 김기자를 취재했다. 김기자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다. 참사가 김기자에는 경사가 된 편이었다. 퇴직한지 8년이 지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KBS는 더없이 크다"는 것이라고.

연극과 방송

지금은 대구에 인접한 경산시에 있는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회우는 1964년 포항에서 동인제 극단 '은하극장' 창립으로 연극활동을 시작했는데, 40여년전의 포항은 인구 7만정도의 항구로 문화예술 분야는 불모지로 척박

하기 이룰데 없는 소도시였다. 1965년 창단 공연때는 배우 5명에 관객이 4명뿐이었다고 한다.

-극단 이름이 아름답고 로맨틱한데, "연습실이 없어서 해변에서 밤이슬 맞으며 연습하다 별뿔뿔 떨어지는걸 보고 덜컥 지은 이름"이라고

-아무래도 연극을 하려면 서울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있지요. 최창봉 선생께서 KBS 중앙방송국장으로 오셨는데, 경력 사항을 보니 연극연출가로 텔레비전 PD 1호 이셨더라구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두가지 일이 전혀 틀린 분야도 아니고 하니 열심히해보자. 딱 힘이됐지요"

예술은 길다
지방의 연극발전을 위해 조금만 마

인생도 길고 예술도 길고



"1966년에 이해랑 이동극장 단원보급 광고를 보고 서울로 달려올라가서 응모했지요. 그런데 이해랑 선생님께서, "김군 자네는 직장이 KBS이고 연극에 대한 열성도 대단한데 자기네 고장 즉 지방에서 연극예술을 열심히 하는 것도 보람찬 일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아쉽지만 포항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로부터 19년뒤 1985년 제3회 전국 연극제에서 '대지의 팔'(차범석 작) 연출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는데 심사위원장이 이해랑선생이었다. 그리고 2004년 4월, 연극인이면 누구나 소망하는 최고의 영예인 '제14회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게 된다. 대선배께서 젊은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신 보람찬 결실이었다.

-방송기자로 근무도 바빴을텐데 어떻게 연극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했

음버리고 5년, 10년, 아니 100년을 두고 기초부터 닦아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연극 활동을 해온 연출가 김삼일 회우. -지금까지 공연한 100여편의 작품연보를 보면 사실주의 작품만 고집해온 편이고 연출도 리얼리즘에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하기도 버거운 부조리극이나 해체극보다는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사실주의극이 좋았습니다. 사실주의극은 진실하고 영원합니다. 무대에 나타난 삶보다 가려진 쪽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송국에서 퇴직하면 대체로 신방과에서 미디어강의를 맡는데 김회우는 연극영화과를 택했다.

"분야가 다른듯 하지만 서로 연관 학문으로 봐요. 방송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연극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방송에서 터득한 종합적인 경험과 지식이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도 절대 필요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영일만에 잉태시킨 고통과 노력

연극 활동은 서울에서도 어려운데 지방에서 40여년 극단을 이끌어 왔으니 어느 정도 집착이 가지만, 속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연극판에서 견뎌낼수 있었을까. "40여년 세월, 고통과 노력을 영일만에 잉태시킨 것이지요. 슬을 못하는것도 큰 고통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의 일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포항시민들, 관계기관, 단체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고맙지요." 중간에 포항제철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연기하겠다는 지방생이 늘어났고, 외지에서 온 가족들이 객석을 채워주었다. 포항 연극에 행운이고 경사였다. 마침 '포항시립극단'(전국에서 두번째로 탄생)이 10월 19일부터 공연하는 '뱅진사택 경사'를 연습하고 있었다. 이제는 문화예술회관 좋은 무대에서 제작비 걱정 안하고 마음놓고 연극할 수 있어서 소원을 이루었다고 여유로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대학은 젊다

대학생활은 어떠할까. 어느새 60대 중반의 원로 교수가 되어 젊은 학생들과 평생해온 연극을 가르치고 함께 뛰다보면 나이도 있고 대학생 기분이 되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가족중에서 따님 지혜영이 파리대학에서 연출공부를 하고 귀국해서 대학원 석사과정중에 있더니 아버지의 예술혼이 2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지택이 포항이어서 출퇴근이 고달프겠다고 했더니 뜻밖의 대답이었다. 아침에는 스킨버스로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고 퇴근때는 부인 이연희 여사가 승용차로 모신다고, 매일 드라이브 데이트니 고달프리가 있을까. 그저 부러울뿐...

글·사진 / 안평선

방송비평



▲HDTV 문화관 <등신불>

방송 : 10. 6(금) 원작 : 김동리
극본 : 이은성, 김이현 연출 : 장형일
원작 소설로도 잘 소개되었고, 20여년전 TV문화관도 고인이 된 이은성 극본에 장감독 연출로 큰 감동을 주었던 걸작중의 한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관동군에서 탈출하여 '금불각'에 당나라 때 소신공양한 반적선사 소신 성불기를 따라 추적한 이야기. 우리 이야기도 아니고 다분히 전설적인 소재를 부담없이 공감하도록 진행시켰다. 현지 촬영으로 현장감을 주었고, 명암의 균형과 조화, 느리게 정지된 듯 하면서 몰아가는 템포가 지루하지 않았고, 작품의 본질(주제)을 치밀하게 연출부각시켰다. 특히 명작영화의 장면을 연상시킨 마지막 장면은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다. 성민이 호감을 주는 열연이었고 김인태, 남일우, 연운경 등 원로급 연기자들이 중심적 역할로 안정감을 주었다. 모

처럼 TV문화관 다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장감독의 다음 작품을 기대하면서,

문화의 달 기획특집

갈대숲에서 음악을 만나다 - 순천

▲KBS스페셜 추석기획

어떤 고향 이야기

<당신은 한계령을 넘었나요>

방송 : 10. 7(토)

PD : 박상조

글/구성 : 오정오

나레이터 : 김세원

연출 : 이재석

명절이라서 모두들 고향

으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는데, 어느새 있고 있었던 그 여름의 악몽 같은 참상을 되새겨준 가슴저미는 리포트였다.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어머니를 찾아 헤메지만 기억없는 나날만 흘러가고.. 돌잔치, 49제, 시신 없는 장례식, 그래도 가을 수확은 거둬들여야하고, 들쟁이 팔을 데리고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김미경 새댁(28), 아들을 따라 눈물을 씻으며 서울로



인평선 회우
(사·한국방송인회 상임부회장)

▲한글날 기획

<부모의 말 제 주어>

방송 : 10. 8(일)

PD : 민승식

글·구성 : 서미현

연출 : 양자영

제작 : KBS제주

석주명 박사가 카드

화한 '제주도 방언집'(1948)을 토대로 초등학교 제주어 학습으로 시작해서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연구 노력하는 과정. 제주어에 대한 유래와 고찰, 몽골어와의 비교, 중세어와의 비교 등 논문적인 구성이었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 언어의 금지와 자부심을 실례로 지방화 시대에 언어의 표준화보다 다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특수한 리포트였다.

▲문화의 달 기획특집

<갈대숲에서 음악을 만나다-순천>

방송 : 10. 16(월) 밤12:30~1:50

PD : 이근형

연출 : 전숙영, 한지홍

아름다운 음악, 스펙타클한 다변형 무대, 대형종합구성, 놓치면 후회할 뻔한 기획특집으로 TV음악프로그램의 결정판이었다. 특히 3인 테너의 트리오메들리에는 열광의 도가니 카로스(karos)타악기 앙상블은 충격적인 연주였다. 심야편성이 불만스러웠는데,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 재방송 되었으면, 열애(가요)·차이콥스키 풍으로 KBS교향악단 연주·박현재, 안형렬, 류정필 3테너의 독창과 합창 메들리(들어와요 소렌토로, 산타루치아, 무정한 밤배, 오 나의 태양, 푸니쿨라 푸니쿨라)·차이콥스키 '폴로네이즈'·교향악단·삼도풍물·사물놀이 鼓GO·순천민은 살아있다갯벌영삼구성·카로스 타악기 앙상블(16명)- '앙상블을 위한 서곡(존백), '우아한유령'(윌리엄발콤), '칼렌모음곡'(비제, 슈드린), '사브레댄스'·교향악단 - '사랑풀가(요한스트라우스 2세), '라데츠키행진곡'(요한스트라우스 1세)